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발신 : 561-162
전주시 진북2동 1034-1 숲정이 성지관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573-350
군산시 나운동 798-1 소망빌딩 4층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수신 : 573-950
대한민국 군산미공군기지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장
Gary.L.Lorth 대령

존경하는 군산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장 귀하

귀하의 부임을 늦게나마 축하하며 미합중국과 제8전투비행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한·미 양국이 상호 평등한 관계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으며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도 성실한 자세로 노력하여 한국 국민에게 미국이 진정한 우방이라는 신뢰를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미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의한 이번 한미행정협정 개정 협상에 참여하여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전면 개정할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 정착을 위해 주둔하고 있고 한국 정부와 국민을 존중한다면 한국의 주권과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침해하는 한미행정협정을 형식적인 개정이 아닌 불합리한 모든 협정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그래야만 우리 또한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을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한국내 미군기지의 임대기간 체결과 기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주한 미군은 한국의 국토를 영구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국토를 사용하는데 있어 계약기간도 없이 사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8,000만평이 넘는 토지를 사용하면서도 50년이 넘게 임대료를 내지 않고 주둔군 지원경비까지 요청하여 매년 약 4억달러를 받고 있는 사실 역시 이해할 없으므로 임대기간 체결과 임대료를 지불 하여야 합니다.

셋째, 미군 범죄는 근절 되어야만 합니다. 아시겠지만 주한미군의 범죄의 발생 횟

수가 많을 뿐 아니라 그 성격 또한 아주 비이성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측은 미군 범죄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공식적인 사죄나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주한미군의 존재 근거마저 의심스럽게 합니다. 평화를 위한 주둔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한 주둔이기에 쉽게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행정협정의 형사재판과 민사청구에 관한 조항을 한국 헌법에 따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미군기지 환경피해 상황을 한·미합동환경조사단을 구성하여 미군기지와 주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기적인 환경조사를 한미행정협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필리핀의 경우처럼 기지 반환 후에 재생 불능의 국토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군산미공군기지의 전투기 출격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소음피해 조사 결과에도 나타났지만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이며 정신적, 신체적 피해와 가옥의 손상이 심각합니다.

신하제 마을에 군산미공군기지의 탄약고가 너무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명과 생활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 탄약고의 이전을 요구합니다.

같은 마을 주민의 사유지 무단 점유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기지에 편입되어 개인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이제까지의 토지 사용료와 토지 반환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미군기지 주변의 공여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기지 주변의 주민들은 자신의 땅이 미군 공여지인 줄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즉시 반환해야 할 것이며 미군기지는 소중한 우리의 국토이므로 최소한의 면적만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세계평화와 정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귀하 역시 그러한 국가가 선임한 특별한 존재이므로 우리는 귀하가 이성과 양심에 따라 합리적인 한·미상호관계 발전에 대한 노력을 하리라 믿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미국정부는 한미행정협정 개정협상에 조속히 참석하여 평등한 한미관계 정립을 위해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한미행정협정이 전면 개정될 때까지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신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1999년 7월 9일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대표 김진화)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